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도우미 없는 비법, 사시생을 위한 후기



이 상 재

- 1981년 6월 생
- 서울 화곡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I. 처음에

저는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은 1-2학년 때 고시를 해볼까 잠시나마 생각하고 그 중 일부는 실행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눈치를 보며 숨어서 준비하다가 조용히 포기하곤 합니다. “고시”라는 말을 꺼내기 꺼그러운 학교 분위기 때문이었던 같습니다. 용기를 주는 또는 응원해 주는 분위기보다는 “넌 현실을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제가 재학생 때 사법시험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했던 이유였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람들보다는 저 같이 하얀 백조가 많은 것이 경험입니다.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점수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특별히 한 건 없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고, 고민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졸업 이후의 진로를 결정하지요.

저는 졸업하고 큰 고민 없이 변호사를 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벌써 4년전 이야기네요.

후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좀 더 어렸을 때, 저학년 때, 너무 억지로 고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고시나 자격증시험 등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실령 나중에 떨어진다 해도 수험

생활을 제대로 2년 정도했다면 그 경험과 지식, 사고, 정신력의 발전은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II. 제1차시험

저는 3년 6개월 동안 1차를 2년 6개월 공부했고 2차를 1년 공부했습니다. 사시 막판인 현 시점에서 사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1차 합격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래도 작은 tip이 있습니다.

- 민법은 가족법과 물권법을 확실히 마스터해야.

40문제 중 가족법과 물권법이 18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공부만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채권법과 총칙부분은 공부를 많이 해도 22문제 중 8문제 내외로 틀린다고 봐야합니다.

- 헌법조문을 읽으면 안됩니다.

부속법령 조문보다 헌법 조문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조문 그 자체가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 형법에서 학설 대립은 문제로 공부하지.

학설 대립 중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오, 위전착, 불능미수, 미필적고의, 원자행 등인데, 이런 부분은 진도별 모강 등을 이용해서 문제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III. 제2차 시험

1. 전략

우선 자신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냉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통과할 정도면 하루 공부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시험보기 바로 전 날까지 최대한 많이 공부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1차 통과할 때랑 비교해서 하루 공부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축복 받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저처럼 도서관에 12시간 있어도 실제로는 6시간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계획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 장기 기억력이 좋은지, 서술형 시험에 강점이 있는지, 성격이 느긋하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지,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연습은 거의 안했고, 문제도 풀지 않고 답을 바로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체력과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 방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항상 자신의 공부 전략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단권화

7월 쯤 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기본서에서 안 볼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전 이해할 부분은 가필을 하든지 책에 줄을 그었습니다. 직관을 가지고 나눠야 하는데, 나누기 힘들다면 강사들이 강조하고 필기할 부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월-4월에 마지막에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해서 단권화해야 합니다. 이는 책 한권에 정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이 2-3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루 만에 볼 수 있으면 단권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 강사의 기본서, 소위 짜라시, 사례집, 학원문제 등으로 정리해서 완성시켜야 합니다.

3. 49일 전

D-49 부터 각 과목마다 4-2-1로 3회독을 하는데 이 때 외워야 할 부분을 외우면서 시험 전 날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답안지에 써야할 걸 외워야 하는데, 쟁점을 보면서 어떻게 답안지에 쓸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외워야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어렵지요. 강의를 들어도 도움 받기 힘든 영역입니다.

4. 두문자

두문자는 잘 활용하면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1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두문자를 직접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강사들이 알려주는 두문자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5. 목차

전형적인 목차를 외우는 것은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형적인 목차를 외우고 있다면 최소한의 점수를 따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인데 자신 있게 이해가 안 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목차를 암기하세요. 중요한 건 창의적인 목차입니다. 전 통목차를 선호했고, 전

형적인 목차에서 문제점에 써야 할 부분을 압축해서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가끔 제목이 2줄이 되기도 했습니다.

6. 답안지 작성

전 비법 졸업생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답안지 작성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합격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논리적이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잘 쓰면 됩니다.

전형적인 태도는 문제점-학설대립-판례-검토 인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관련 조문을 쓰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로 판례의 태도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비판하든지 아니면 판례를 비판하는 학설을 비판하고 짧게 결론 내렸습니다.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문제점(조문)-판례-판례평가-결론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글씨는 빨리 쓸 수 있으면 매우 좋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쓰면 됩니다. 시간 없어서 잘 쓰기도 불가능합니다. 펜은 지브라와 에너젤이 주류이고 전 에너젤 0.5를 사용했습니다.

7. 사안의 포섭

사례집에서는 보통 공부하기 쉽게 의의-요건-효과-사안의 포섭 이런 방식으로 이론을 먼저 많이 쓰고 최후에 짧게 사안의 포섭을 하는데, 전 요건을 쓰면서 동시에 사안을 포섭시키고 바로 조금씩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통목차라면 저

처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써야 답안지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조문이나 제도의 취지가 정말 중요한데, 취지를 의의 부분에 같이 쓰는 것 보다는 보통 취지가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쓰는 것이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8. 면과락 전략

전 공부순서가 후4법은 민소-상법-형소-행정법 이었고, 기본3법은 1차 때 부터 민-형-헌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정법과 헌법이 취약과목입니다. 2과목 정도는 면과락을 목표로 공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전 민소법과 형소법이 전략과목이었고 행정법과 헌법이 면과락 과목이었습니다. 공부방법은 꼭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공부합니다(헌법은 헌법소원과 기본권, 행정법은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하지만 무시워서 그 외 부분도 조금씩 보긴 봤습니다.

시험장에서는 60점은 정말 잘 쓰고 40점은 대충 쓰는 전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가니깐 굉장히 두려워서 30점 정도만 대충 짧게 썼습니다. ㅎㅎ

9. 강의

전 후4법은 예비순환, 2순환, 3순환 강의를 들었고, 기본3법은 1순환, 3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부 학교 도서관에서 넷북을 이용해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할인 받기 위해서 베리타스 종합반 강의를 이용했습니다. 개인의 취향

문제이나,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최소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정도만 들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민소법 - 이종훈강사님

전 정말 만족하고 크게 도움 받았습다. 예비순환은 이시운 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2순환과 3순환은 자신의 사례집 위주로 수업합니다.

·상법 - 김혁봉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소법 - 신이철

형소법 양 줄이는데 큰 도움 받았습다. 증거법 설명도 매우 훌륭합니다.

·행정법 - 류준세

목소리가 좋아서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민법 - 박승수

사례 풀이 설명이 좋습니다.

·형법 - 이인규

이인규 사례풀이 구조에 적응이 되면 형법이 쉬워집니다.

·헌법 - 김변호사님

정회철 사례집을 편하게 강의하십니다.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 전날 본 교재

·민소법 - 이종훈 사례연습
이 책 한권만 잘 이해하면 민소법은
문제없습니다.

·상법 - 김혁복 상법신강, 2-3순환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보다 상법
신강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소법 - 신이철 프린트물, 2-3순
환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와 보
충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법 - 류준세 워크북, 2-3순환
모의고사 문제. 제가 각론을 안 본관계
로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한과목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을 공부하기에 이 조합으
로 충분합니다.

·민법 - 박승수강의노트(민법교안
강의 노트), 박승수 보충 사례, 1-3순환
모의고사 문제이면 시험에서는 민법 실

력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실력 향상에는
교수님 교과서가 좋다는 말들도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사색을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형법 - 이인규 논점형법강의, 인인
규 기출사례집, 1순환 모의고사 문제.
이인규 기출사례집 좋습니다. 논점형법
강의는 색칠된 부분(심화해설부분)이 도
움이 됩니다.

·헌법 - 정희철 헌법사례연습. 이 책
이면 충분합니다.

IV. 마치면서

위의 글은 저처럼 혼자서 공부하는 비
법 사시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특히 고시 공부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
하시면 반드시 꿈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님들, 화이팅,,